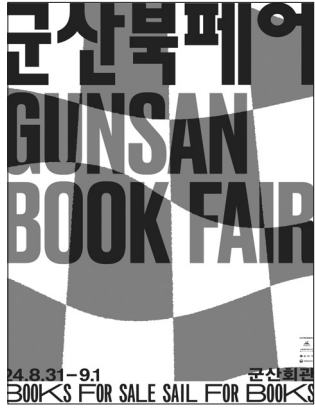


# '독서문화의 새로운 장 열다'

### '군산북페어 2024' 개최... 31일 군산회관서 북마켓·강연·이벤트·전시 등 진행

군산시 도시재생과, 군산시립도서관 관리과, 소통협력센터 군산이 공동 주최하고, 군산 소재 13곳의 서점 연합체가 주관하는 '군산북페어 2024'가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군산시 나운동 군산회관에서 개최된다.

특히 북페어가 진행되는 군산회관은 건축가 김중업의 유작으로 알려진 구 군산시민문화회관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북페어 2024가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군산시 나운동 군산회관에서 개최된다.

'군산북페어 2024'는 군산의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책을 발간하고 유통하는 국내의 100개 팀(국내 95개, 해외 5개)이 참여한다.

'군산북페어 2024'는 '도서가 책을 판다(Books For Sale)'와 '책을 탐구한다(Sail For Books)'라는 슬로건 하에 북마켓·주제토크·강연·이벤트·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강점기 근대 유산과 산업화 시대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는 기억의 도시 군산에서 출판과 기록의 산물인 책의 의미를 탐구하는 자리를 제공한다.

먼저 주제 토크와 강연에서는 10년 이상 '동네 책방'을 운영해온 국내

및 일본 서점 대표들,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를 써온 원로 작가와 젊은 작가, 전시와 연계된 작가 및 북 디자이너 등 다양한 연사들이 참여한다.

또한, 군산을 문학적으로 탐구하는 낭독회와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담은 잡지 '진(Zine)'을 만드는 워크숍 등 독자들이 직접 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주최 측은 전시와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들이 책과 서점, 출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며 교류하는 이번 축제를 마음껏 즐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사전 예약 및 세부 안내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군산북페어 홈페이지(gsbf.kr)·군산시청 홈페이지(gunsan.go.kr)·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gunsan.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북마켓과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군산시청 홈페이지·군산북페어 홈페이지·공식 인스타그램(@gsbf.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내년 국가예산 막바지 총력전

### 전북권 지역 국회의원과의 주요 건의사업 공유·논의

군산시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12일, 군산시 관계자들은 신영대 국회의원실 등 전북권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군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재부 최종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달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방문하여 군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의 필요성·적정성·시급성을 설명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정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12월 최종 확정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고령층 감염예방에 총력"

### 강임준 군산시장, 철저한 대책 마련·예방 활동 주력 강조

12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빠르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최근 코로나의 유행세가 심상치 않아 여름감기라고 대수롭게 여겼던 이들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4주간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또한 표본감시를 통해 신고된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예방수칙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코로나19는 오미크론 계열로 치사율은 낮

은 편이라 다행이지만 고령층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는 건 문제"라며 "코로나 치료제 파스비드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령층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유행 확산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리"고 말을 맺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 어린이영어도서관, 하반기 강좌 운영

### 14일까지 도서관 누리집서 신청

익산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ICEEL)이 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리더가 리더(READERS ARE LEADERS)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영어독서 문화강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어독서문화강좌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준과 필요에 맞춰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아울러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그룹별 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 학습도구를 활용해 수강자들이 몰입감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유아 4개반, 초등 6개반, 성인 3개반으로 운영이 된다. 유아반은 6~7세를 대상으로 운율과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배우는 영어입문 과정이고, 초등반은 책 읽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로 나뉘어 있다.

성인강좌는 원어민 회화수업 등을 진행하며, '엄마표 영어로 도전 1000권' 수업에 참여하면 수강생의 자녀도 매일 영어책읽기(Miracle Reading 1000 Books)에 참여할 수 있다.

미라클 리딩 1000 북스(Miracle Reading 1000 Books)는 매일 영어책 읽

기를 실천해 1000권 읽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3월 시작해 현재 100명의 참여자 중 900권 돌파자 1명, 700권 돌파자 500명, 500권 돌파자 100명 등 100명 이상 달성자는 19명으로 참여 열기가 뜨겁다.

수강 신청은 오는 14일 유아와 성인은 오전 10시, 초등학생은 오후 2시부터 영어도서관 누리집(lib.iksan.go.kr/eng\_lib)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운영 기간은 8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주이며 수강료는 유아·초등은 무료, 성인의 경우 2만 원이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영어독서능력향상(AR) 프로그램과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6개반 원어민 스토리텔링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영미권 문화체험으로 10월 핼러윈 페스티벌과 12월 크리스마스 특별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영어도서관(063-859-3474~5)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은 "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미권 문화 체험까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구슬땀'

### 국회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지원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이춘석·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익산에 연고를 지닌 조배숙·한민수 의원을 만났다.

주요 사업인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협조를 적극 건의했다.

특히 이춘석·한병도 의원에게는 △홀로그래프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개발장제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두 의원은 필요한 예산 확보에 협조를 약속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을 찾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환경정책연구원 자연환경 복원사업 △송학동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피력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현을 시장은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가 강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산 확보에 대응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진행

군산시가 폭염경보에 대응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산시 역시 단독 농작업 자재와 수분 섭취 등 폭염 시 농작업 요령을 안내하면서 농업인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작업하기 △모자나 자외선차단제로 피부 보호하기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여 규칙적인 휴식과 물마시기 △무더운시간(12~17시) 피해서 작업 최소화 등이 있다.

특히 폭염 사망자의 40%가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임을 감안해 군산시는 야외 논·밭, 비닐하우스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수시 점검하고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또래 상담자 양성 교육 진행

익산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또래상담자를 양성한다.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래상담자 양성 교육을 오는 23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또래상담자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뤄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고 또래상담자로 활동하게 된다.

또래상담자란 또래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돕는 친구를 뜻한다. 일정한 훈련 과정을 거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또래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과정에서 집단 내 공감과 배려의 문화를 촉진한다.

익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